

## 국어교사의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김수정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머리말
- II.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맺음말

## I. 머리말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어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교육부고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한글 창제 원리 이해’, ‘통일 시대 국어에 대한 이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함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어사 교육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현재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사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수능에서 문법 영역이 선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어사 교육의 위상도 함께 낮아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교에서 국어사 관련 영역이 대부분 전공 선택으로 다루어지면서 국어사 관련 교육내용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어사 관련 내용을 접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으로 나갔을 때 국어교사는 당연히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해 자

신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교사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수업(박형우, 2018: 130)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국어사 교육이 점차 배제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얹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 문자가 존재하게 된 과정과 역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어교육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영욱(1998), 박형우(2004, 2013, 2014), 양영희(2014, 2016), 양정호(2012), 이규범(2019), 이도영(1999), 이승희(2015), 이해원(2019), 장윤희(2004), 주세형(2005), 최소영(2021), 허재영(2005) 등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어교육 안에서 국어사 교육의 위상과 목표, 내용 선정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 국어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국어사 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에 의하면 ‘인식(cognition)’이라는 말은 ‘지식’과 같은 뜻이지만 지식이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는 데 반해,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을 포함한 의미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인간은 인식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이 성과에 기초하여 객관 세계에 작용을 가하고 실천과 실제 생활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내용을 선정함에 있어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영향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전문가인 교사 입장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교육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박형우, 2018: 105)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장 전문가인 국어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축적된 국어사 연구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를 어떻게 교육내용으로 구현시킬지를 모색해보고

자 한다. 박형우(2013: 2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국어사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시기를 중심으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로 나누고 각 시기의 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국어사 교육내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장 전문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수업이 필요하다. 즉 국어사 교육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현장 전문가인 국어교사가 국어사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국어사 교육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고춘화(2011), 김효연·김규훈(2016) 등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국어사 교육내용의 범위와 실현 양상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전문가인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국어사 교육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최근 들어 최소영(2021)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고 국어사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최소영(2021)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장을 중심으로 국어사 교육에 대한 인식에 주목한 연구는 최소영(2018, 2021)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어사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고춘화, 2011; 박형우, 2013; 양영희, 2016 등) 그것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어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가 국어사 교육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학습자,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방안

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국어교사가 국어사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의 중요도와 국어생활사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인식의 정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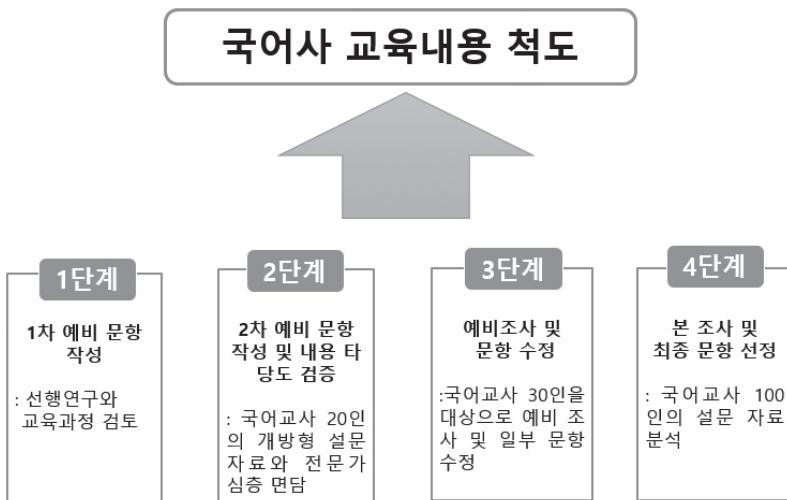
## II.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통합 연구 방법(mixed research method)을 적용하였다. II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연구 방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연구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글의 가치, 훈민정음 창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어사 교육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져(김영욱, 1998; 이도영, 1999 등) 최근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국어사 교육의 방향성 등(양영희, 2021)에 이르기까지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 국어사 교육 자료 활용 방안, 교육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주체의 국어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 국어사 교육의 범주별 교육내용에 대한 척도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육 전문가인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절차와 과정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어사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전문가인 현장 국어교사의 의견 수집을 위한 방법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즉 한글창체, 음운·문법·어휘의 변화, 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국어사 교육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어생활사 교육내용(김수정, 2017; 장윤희, 2009; 조용린·백낙천, 2014)을 포함시켰다.

### 1) 1단계 -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내용 구조화

1단계에서 선행 연구와 기존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어사 교육내용을 구조화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sup>1)</sup> 둘째,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한 국어사 교육 목표와 국어사 교육내용, 학습 자료를 준거로 사용하였다.셋째, 국어사 교육의 실태 파악 및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을 토대로 국어사 교육내용 구성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에 나타난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 2) 2단계 - 전문가 심층 면담을 활용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및 2차 예비 문항 작성

다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국어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국어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의 목표 및 인식 정도에 대한 기초 판단을 위하여 20명의 국어교사에게 국어사 교육의 목표 및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을 묻는 개방형 설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개방형 설문 자료를 통해 설계된 문항을 토대로 2022년 5월 4주부터 6월 3주까지 중학교 국어교사 2인과 고등학교 국어교사 2인, 교육 전문가 1인과 각각 총 3~4회 심층 면담을 통해 문항 구조 및 개별 문항의 적절성, 문항 양호도와 안면 타당도, 문항의 타당성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물음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복된 문항, 위계가 맞지 않는 문항을 삭제 혹은 수정하여 총 21개 문항의 2차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심층 면담은 <표 1>과 같이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中 국어사 교육 관련 내용(교육부, 2015)

[9국04-08]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교육 전문가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전문가 심층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순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관	직위	교육 및 강의 경력
1	여	40	석사	고등학교	국어교사	15년
2	여	35	학사	고등학교	국어교사	5년
3	여	41	학사	중학교	국어교사	13년
4	남	34	석사	중학교	국어교사	6년
5	여	46	박사	대학교	교수	17년

### 3) 3단계 - 예비조사 및 문항 수정

2022년 6월 16일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20인을 포함한 30명의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2차 예비 문항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문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답변이 애매한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문항 수는 21개로 유지하였다.

### 4) 4단계 - 본 조사와 최종 문항 선정

3단계를 통해 확정한 21개 문항에 대하여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성된 질문지의 모든 문항이 선행 연구와 지금까지 국어사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다루어진 것이지만 현장에 있는 국어교사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국어 역사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보다 중점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평정하게 하는 자기보고식의 5점 러커트(Likert)식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5단계의 평정 척도는 ‘매우 중요하다’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주어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점수화하였다. 또 통계 절차를 거쳐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전국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우선적으로 표집하였다. 질문지는 ‘네이버 설문 품’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을 활용하여 배부하였으며 조사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160부를 배부하였는데, 10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기입, 무응답 등을 포함하여 무성의하게 작성된 자료를 제외하고 100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표 2〉 연구 대상 개인적 변인

변인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3	33.0
	여	67	67.0
최종학력	학부 졸업	72	72.0
	석사 수료 이상	28	28.0
학교급	중학교	47	47.0
	고등학교	53	53.0
교육경력	5년 이하	37	37.0
	6~15년	38	38.0
	16~20년	15	15.0
	21년 이상	10	10.0
수업 방식 선호도	교사 중심	45	45.0
	학습자 중심	55	55.0

## 2) 조사도구

### (1) 개방형 설문지

개방형 설문지는 국내·국외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 판단과 추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문지는 ‘학교 현장에서 국어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어사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국어사 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국어사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묻는 3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 (2)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사가 인식하는 국어사 교육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개방형 설문지, 국어교육 전문가 및 연구자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국어학적 규칙, 국어생활사, 고전 문학 분석, 국어과 영역과의 관련성, 훈민정음, 국어문화와 국어발전이라는 6개의 영역과 총 2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교육 전문가, 중등 국어교사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 문항에 나타나는 의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의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문장을 수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20명의 국어교사들이 작성한 개방형 설문지는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유사한 주제로 범주화하고, 유형화하는 과정이다(Stainback & Stainback, 1988). 수집된 자료들은 비슷한 의미의 내용끼리 묶음을 형성하여 문항수를 줄여 나가고, 묶음을 형성한 문항들은 다시 공통점을 중심으로 큰 주제로 분류·범주화하여 예비 문항 선정에 사용하였다.

예비 문항의 단계를 거쳐 설계된 최종 문항 연구 자료는 2022년 6월 4주~7월 3주 사이에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분석(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을 진행하였고, 공통된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사 교육의 주요 내용인 국어학적 변화, 국어생활사, 고전문학과의 관련성, 국어과 영역과의 관련성, 훈민정음, 국어문화와 국어 발전의 여섯 요인을 가능한 최소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 적재치 값에 근거하여 공통 요인을 묶기 위하여 회전 방식은 직각 회전방법 가운데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요 요인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만을 채택하였으며 요인부하량 .40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위 요인별 총점수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후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예비 문항 선정과 제작

##### 1) 선행 연구와 개방형 설문자료 분석

앞서 연구 절차에서 제시한 개방형 설문자료는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귀납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공통된 의미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여 범주화 한 자료들은 결과를 간결하게 축약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

혹은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류민정·표내숙, 2007: 161). 국어교사들의 응답 내용은 컴퓨터 코딩 작업을 거쳐 입력하였으며 의미들의 공통성 여부에 따라 각각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국어교사들은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국어사 교육내용 범주를 두고 ‘첫째, 고대, 중세, 근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국어 변화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둘째, 문헌과 역사적 자료에 기반하여 당대 국어 생활의 맥락과 선인들의 언어생활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국어 시간 및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고전 문학 해설을 위해 기반지식이 되는 옛말의 의미, 옛말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넷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국어 역사를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원리, 한글의 우수성,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의 역사를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통해 국어교사들은 문법적 내용과 조상들의 언어사용 맥락, 훈민정음, 국어문화의 현재와 미래, 고전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사 교육내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sup>

〈표 3〉은 개방형 설문자료에서 귀납적으로 분석·분류된 6개 영역과 대표적인 국어사 교육내용 정보들을 제시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견된 정보는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선인들의 국어문화와 국어생활의 역사이며 새롭게 발견된 정보들은 예비 문항 작성과 구성에 사용하였다.

---

2) 고춘화(2011: 132)와 김규훈·김효연(2016: 195-196)에서는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의 논의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국어의 변천양상(음운, 형태, 의미 등), 한글 창제 원리와 가치, 국어의 계통, 국어 수난과 발전, 국어의 미래 등으로 나타난다.

〈표 3〉 개방형 설문 내용 분석 결과

요인명	세부 정보 내용 (국어사 교육내용을 나타내는 대표 진술문)
옛말의 국어학적 규칙과 문법의 통시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국어자료를 통한 국어변화 이해</li> <li>• 국어 변화의 언어적 특성 탐구</li> <li>• 국어 발음, 표기 변화</li> <li>•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국어의 특징</li> <li>• 고대·중세·근대 국어의 주요 특징</li> <li>• 중세 국어 자료를 읽고 해석</li> </ul>
선인들의 국어문화와 국어생활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발전의 역사적 배경</li> <li>• 역사 자료에 기반한 국어생활의 역사 이해</li> <li>• 국어 발전의 시대적 맥락</li> <li>• 조상들의 언어생활</li> <li>• 국어 역사와 연계</li> <li>• 한글 문현을 통한 국어 생활사 이해</li> </ul>
고전문학 분석을 위한 기반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길동, 사미인곡 등 고전문학과 연계</li> <li>• 고전문학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해석</li> <li>• 고전문학에 사용된 단어의 변화 이해</li> </ul>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국어능력 신장</li> <li>•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자료로써 국어사 자료 활용</li> </ul>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원리,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독창성</li> <li>• 한글 창제 원리와 한글의 가치 이해</li> <li>• 일제강점기 국어 수난의 역사</li> </ul>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생활 성찰과 국어사랑</li> <li>• 국어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li> <li>• 현재와 미래 국어의 발전 방향</li> </ul>

〈표 3〉을 통해 개방형 설문자료에서 분류된 각 영역을 살펴보면 문법적 내용, 국어생활사, 고전문학 분석을 위한 기반 지식,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훈민정음 창제, 국어문화의 현재와 미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춘화(2011), 김영욱(1998), 민현식(2002), 이관규(2004), 이도영(1999) 등에서 제시한 국어사 교육내용 범주와도 무관하지 않다. 공통적으로 분류된 내용들은 선행 연구, 교육과정에서 개념화되어 사용되는 카테고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으나 다양한 국어 역사 자료에 대한 요구와 국어과 안에 기능 영역, 문학 영역과 연계한 내용을 제안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 예비 문항 선정 및 제작

문헌을 통해 정리된 내용과 개방형 설문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총 21문항의 국어사 교육내용 예비 설문지가 제작되었다. 우선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내용의 범주를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1981, 1987, 1988)에서는 ‘국어사의 개략을 안다’,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안다’라는 내용으로 과거의 국어 특징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1981, 1988)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알고, 국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국어의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는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라는 성취 기준 아래 ‘현대의 국어와 옛 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기본’ 내용과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심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국어학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7)에서 역시 옛말과 현재의 말 비교하기,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등 국어학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는 국어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국어생활사적 특징과 국어사용, 남북한 언어 문제 등 국어 문화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어교사들이 인식하는 국어사 교육내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로 〈표 4〉와 같이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를 여섯 요인으로 나누고 문항을 세분화하여 21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류하였다.<sup>3)</sup> 여

3) 〈표 4〉에는 예비 문항 21개와 문헌을 통해 정리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으며, 21문항의 출처와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 요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섯 요인은 ‘옛말의 국어학적 규칙과 문법의 동시적 변화, 선인들의 국어문화와 국어생활의 역사, 고전 문학 분석을 위한 기반 지식,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역사, 국어문화와 국어발전’이다.

**〈표 4〉 예비 설문 문항 정보**

예비문항(21개)	요인 정보	선행 연구 출처
① 국어가 변화해 온 특징		
② 옛말의 음운, 형태, 문장, 담화, 어휘 등의 문법적 특징		
③ 고대, 중세, 근대 각 시기의 문법적 특징		
④ 옛말과 현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 비교		
⑤ 일화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언어문화	옛말의 국어학적 규칙과 문법의 동시적 변화	권재일(1995), 김영욱(1998), 민현식(2002), 이관규(2004), 이도영(1999) 등
⑥ 한글 문헌의 의미와 가치의 외재적 의미		
⑦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국어 수난과 발전의 역사		
⑧ 고전문학 분석을 위한 문법적 특징	선인들의 국어문화와 국어생활의 역사	김광해(1997), 김수정(2017), 김효연·김규훈(2016), 박형우(2004), 이관규(2004), 이도영(1999) 등
⑨ 고전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과거와 현재		
⑩ 고전 자료의 사회 문학적 맥락, 텍스트의 가치		
⑪ 고전문학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내용	고전 문학 분석을 위한 기반 지식	이자은(2007), 임재욱(2017), 장윤희(2002) 등
⑫ 현대문학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내용		
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되는 내용		
⑭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체계	국어과 각 영역과의 관련성	양영희(2016), 최소영(2021) 등
⑮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제자 원리		
⑯ 관련 인물, 일화 등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가치		
⑰ 관련 인물, 일화 등을 중심으로 한글의 역사와 가치		
⑱ 관용어, 속담, 수수께끼 등을 중심으로 한 국어문화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역사	김광해(1997), 김수정(2011, 2017), 김영욱(1998), 박형우(2004), 양정호(2015), 이관규(2004) 등
⑲ 담화 관습을 중심으로 한 과거와 현재의 국어문화		
⑳ 남북의 언어문화와 통일 시대 국어 발전 방향		
㉑ 정보화 시대 국어 발전 방향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박형우(2004), 이관규(2004), 이도영(1999) 등

## 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1.에서 개발된 21문항의 예비 설문지를 사용하여 100명의 국어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예비 문항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타당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국어사 교육내용 문항들에 대한 공통적 의미를 찾아내고 문항 군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변량 중 72.069%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요인의 부하량은 504 이상으로 모두 양호한 요인 적재치를 나타내주었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요인. 국어생활사	⑤	.848	.029	.093	.315	.035
	⑥	.832	.072	-.002	.332	.036
	⑦	.814	.087	.106	.307	.027
	⑩	.740	.269	.047	-.043	.034
	⑯	.713	.043	.157	.053	.272
2요인. 문법적 규칙	②	-.093	.863	.162	.240	.035
	③	-.029	.810	.099	.249	.194
	⑧	.199	.760	.137	-.168	.186
	④	.157	.703	.382	-.123	-.066
	⑨	.219	.687	.344	-.214	-.104
	①	.295	.599	.109	.261	.011
3요인. 훈민정음	⑯	.086	.149	.883	.142	.071
	⑰	.037	.219	.827	.101	.199
	⑮	.194	.306	.780	.106	-.004
	⑭	.002	.507	.597	.101	-.027
4요인. 국어능력 신장	⑫	.434	.041	.118	.783	.118
	⑬	.483	-.006	.148	.756	.131
	⑪	.266	.254	.350	.504	-.070
5요인.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	.103	.091	-.070	.035	.816
	㉑	.059	-.008	.446	-.002	.703
	㉘	.505	.155	.047	.315	.564
고유치 누적분산 Cronbach's α		7.338 34.942 .895	3.584 52.010 .882	1.710 60.154 .882	1.424 66.937 .842	1.078 72.069 .616

문항 개발 당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국어교사들의 경우 국어사 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의 관련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에 고전문학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요인을 만들고 3개의 하위 문항(⑧, ⑨, ⑩)을 만들어 분류하였다. 그러나 요인 분석 결과 고전문학과 관련된 3개의 하위 문항 모두 1요인(국어생활사)과 2요인(문법적 내용)으로 문항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회의에서 고전문학 자료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국어사 자료로 포함될 수 있으며 문법 영역 안에 포함된 국어사 교육에서 다루는 고전문학 자료의 교육내용은 결국 1요인(국어생활사), 2요인(문법적 내용)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전문학 관련 요인을 삭제한 후 하위 문항들을 1요인(국어생활사)과 2요인(문법적 내용)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였다. ⑯번 문항 역시 문항 개발 당시 5요인(국어문화와 발전)에 포함시켰으나 요인 분석 결과 1요인(국어생활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1요인(국어생활사)으로 배치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거치면서 5요인, 총 21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추출 요인을 살펴보면 1요인은 선인들의 국어생활, 한글생활과 관련된 문항으로 총 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생활사’라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 국어학적 특징과 관련된 문항으로 총 6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법적 내용’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제자원리, 훈민정음 문자체계와 관련되는 문항으로 총 4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훈민정음’이라고 명명하였다. 4요인은 문학, 교과교육 등 국어과 다른 영역과 관련되는 문항으로 총 3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능력 신장’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요인은 국어문화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되는 문항으로 총 3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문화와 국어발전’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한 결과, .895(1요인), .882(2요인), .882(3요인), .842(4요인), .616(5요인)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임이 확인되었다.<sup>4)</sup>

### 3. 기술통계 결과 분석 및 논의

#### 1) 기술통계 결과

국어사 교육내용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는 <표 6>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면 평균은 3.07~4.56에 분포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717~1.297 사이에서 나타났다.

<표 6> 문항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M(SD)	왜도	첨도	총점과 문항상관
국어생활사	⑤	4.28(.911)	-1.304	1.159	.918
	⑥	4.27(.886)	-1.184	1.171	.899
	⑦	4.31(.873)	-1.304	1.587	.890
	⑩	4.21(.957)	-1.213	1.231	.754
	⑯	4.27(.839)	-1.281	1.956	.738
문법적 내용	②	3.43(1.085)	-.446	-.479	.869
	③	3.07(1.166)	-.099	-.702	.808
	⑧	3.42(1.112)	-.222	-.753	.797
	④	3.98(1.044)	-.937	.404	.813
	⑨	3.68(1.091)	-.665	-.215	.797
	①	4.16(.788)	-.926	1.549	.665
훈민정음	⑯	4.18(.989)	-1.268	1.475	.899
	⑰	4.30(.990)	-1.658	2.541	.881
	⑮	4.10(.937)	-.653	-.319	.870
	⑭	4.08(1.017)	-1.115	.947	.796

- 4) 1~4 요인의 경우 .8 이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요인의 경우 .6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기본 수준으로 나타났다. 5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 결과, 5요인에 해당하는 ‘남북언어, 정보화시대의 국어생활, 국어문화’ 등의 교육내용이 ‘과거가 아닌 국어의 현재나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넓게 보았을 때 국어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국어 역사로 보아야 하지만 과거만을 국어 역사 범주로 여기고 있는 관점에서는 문항이 다소 애매하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국어능력 신장	(2)	4.56(.717)	-1.975	5.333	.917
	(3)	4.42(.890)	-1.554	1.982	.940
	(1)	2.93(1.296)	.105	-1.114	.737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20)	3.56(1.297)	-.545	-.906	.831
	(21)	4.36(.927)	-1.638	2.614	.750
	(8)	4.25(.869)	-1.267	1.673	.682

$$KMO = .805 \text{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1375.873, P < .001$$

다음으로 하위요인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665~.940으로 나타나 문항과 총점수 상관계수가 .40 이하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체 자료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 값은 .805이고,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도 1375.873( $p < .001$ )의 값을 나타낸다. KMO 값은 .50~1.00에서 나타날 때,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김계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 타당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최종 설문 문항들은 상위 요인들과 상관성을 지니는 동시에 문항별 독립성을 유지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어사 교육내용의 정보 척도 개발을 위한 첫 연구 과정으로, 각각의 정보 척도 사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과 분석 및 논의 사항

국어교사의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 자료는 각 문항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러하다(3점)’, ‘대체로 그러하다(4점)’, ‘매우 그러하다(5점)’에 점수를 부여한 다음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별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등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어교사가 속해 있는 학교급별, 선호수업,

교육 경력에 따른 응답 유형 및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국어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어생활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4.268로 가장 높았으며 훈민정음(4.162), 국어문화와 국어발전(4.056)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어능력 신장(3.963)과 문법적 내용(3.623)에 대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국어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법적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작 국어교사들은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분석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국어사 영역이 문법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문법과 관련이 높은 듯 보이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 있는 국어교사들은 국어사 교육 목표와 관련지어 볼 때 ‘문법적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표 7〉 국어교사의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에 대한 요인별 평균

요인명	응답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어생활사	100	1.00	5.00	4.268	.750
문법적 내용	100	1.00	5.00	3.623	.836
훈민정음	100	1.00	5.00	4.162	.847
국어능력 신장	100	1.00	5.00	3.963	.699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100	1.00	5.00	4.056	.789

〈표 6〉에 제시된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더라도 ‘훈민정음’ 요인에서 국

5) 개방형 서술 문항에서 대다수의 국어교사들은 국어사 교육의 목표는 국어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함양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국어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어생활사와 관련된 내용이 문법 규칙에 비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교사들은 제자원리(4.10)나 고대문자(4.08)와 같이 다소 문법적 요인이 강한 문항보다 한글역사(4.30), 창제와 관련된 일화(4.18)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국어사 교육에서 국어생활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국어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급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국어생활사, 훈민정음, 국어능력 신장,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요인에서 중학교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법적 내용 요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3.679)가 중학교 교사(3.560)에 비해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8> 학교급별에 따른 요인별 인식 차이 검정

요인명	학교급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t-test
국어생활사	중	47	4.319	.643	.524
	고	53	4.222	.837	
문법적 내용	중	47	3.560	.847	.480
	고	53	3.679	.830	
훈민정음	중	47	4.207	.857	.620
	고	53	4.122	.844	
국어능력 신장	중	47	4.021	.646	.438
	고	53	3.912	.746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중	47	4.085	.827	.736
	고	53	4.031	.760	

다음으로 국어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따른 중요도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

일수록 ‘문법규칙’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심의 활동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일수록 ‘문법규칙’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05)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선호 수업에 따른 요인별 인식 차이 검정

요인명	선호수업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t-test
국어생활사	교시중심	45	4.116	.864	.066
	학습자중심	55	4.392	.623	
문법적 내용	교시중심	45	3.833	.862	.022
	학습자중심	55	3.452	.780	
훈민정음	교시중심	45	4.100	.878	.507
	학습자중심	55	4.214	.826	
국어능력 신장	교시중심	45	3.904	.822	.443
	학습자중심	55	4.012	.584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교시중심	45	4.074	.685	.843
	학습자중심	55	4.042	.870	

마지막으로 교육 경력에 따른 국어교사의 요인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이 낮은 교사(1~5년)의 경우, ‘훈민정음(4.371) > 국어생활사(4.149) > 국어문화와국어발전(4.095) > 국어능력신장(3.971) > 문법적 내용(3.871)’ 순으로 나타났으며 6~15년 경력의 교사는 ‘국어생활사(4.426) > 훈민정음(4.072) > 국어능력신장(3.947) > 국어문화와국어발전(3.851) > 문법적규칙(3.54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직 경력이 16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국어생활사(4.200) > 훈민정음(4.018) > 국어문화와국어발전(4.057) > 국어능력신장(3.975) > 문법적규칙(3.4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경력이 많은 교사이든, 경력이 적은

교사이든 국어사 교육내용으로 문법적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 경력이 많아질수록 ‘문법적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국어사 교육에서는 ‘훈민정음’ 관련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범대학교 교육과정 및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훈민정음,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는 국어사 관련 내용들이 점차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0〉 교육 경력에 따른 요인별 평균 차이

요인명	교육경력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국어생활사	1~5년	35	4.149	.738
	6~15년	38	4.426	.603
	16년 이상	27	4.200	.923
문법적 내용	1~5년	35	3.871	.694
	6~15년	38	3.543	.745
	16년 이상	27	3.414	1.049
훈민정음	1~5년	35	4.371	.622
	6~15년	38	4.072	.848
	16년 이상	27	4.018	1.054
국어능력 신장	1~5년	35	3.971	.612
	6~15년	38	3.947	.583
	16년 이상	27	3.975	.942
국어문화와 국어발전	1~5년	35	4.095	.660
	6~15년	38	3.851	.923
	16년 이상	27	4.057	.789

그동안 이루어진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에서 언간을 활용한 국어생활사, 국어생활사 교육내용 분석 등 국어생활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김수정, 2017; 장윤희, 2009; 조용린·백낙천, 2014) 교과서 반영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현장 국어교사들은 국어생활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국어 생활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해 주었다. 그간에 축적된 국어생활사 교육내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IV. 맷음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들이 국어사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선행 연구와 그간의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1차 예비 문항을 만들었다. 둘째, 1차 예비 문항과 전문가 개방형 설문자료(20명)를 비교·검토하여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에 대한 정보를 담은 2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2차 예비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20명)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 설문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였다. 넷째, 21문항을 포함하는 최종 설문지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료(100명)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총 135명의 현장 국어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개방형 설문자료), 기술적 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검사(Cronbach's  $\alpha$ )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사가 인식하는 국어사 교육내용 정보를 측정하는 21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전문가인 국어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와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정보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 현장과 학계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현장과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2.10.31 투고되었으며, 2022.11.09 심사가 시작되어 2022.12.1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춘화(2011), 「국어사 교육 내용의 실현 양상과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49, 125-152.
- 교육과학기술부(2007),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제2007-79호)』,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제2009-41호)』,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제1992-19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제1992-11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제1997-15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제1997-15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 2, 159-175.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테이터솔루션.
-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규훈·김효연(2016), 「국어사 교육의 인성 교육적 함의」,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2), 185-214.
- 김수정(2011), 「‘훈민정음’의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 국어생활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17), 「국어생활사 교육내용 분석 연구」, 『문법교육』 25, 27-57.
- 김영옥(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 26, 85-110.
- 김효연·김규훈(2016), 「생태언어학 관점의 국어사 교육 방향 모색」, 『우리말글』 68, 115-140.
- 류민정·표내숙(2007), 「한국판 신체적 유능감 정보 척도 개발 - 체육수업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8(2), 155-174.
- 문교부(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제442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제442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제87-7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제88-7호)』,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67-125.
- 박형우(2004),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4, 143-166.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 연구』 16, 7-33.
- 박형우(2014), 「국어과 교과서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 ‘독서와 문법Ⅱ’의 국어 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0, 131-175.
- 박형우(2018), 「국어 교사의 국어사 관련 개념 연구」, 『문법교육』 34, 105-133.
- 양영희(2014), 「‘국어Ⅱ’의 국어사 단원 분석 및 제언」, 『한국언어문화』 91, 389-410.
- 양영희(2016),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국어교육학연구』 51(4), 157-179.
- 양영희(2021), 「2022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 설계 - 현행 문법 교육 내용의 적합성 검증」, 『국어교육학연구』 56(4), 165-203.

- 양정호(2012),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교육」, 『한국어학』 57, 155-177.
- 양정호(2015), 「〈독서와 문법〉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및 자료 텍스트에 대한 분석」, 『텍스트언어학』 38, 145-165.
- 이관규(2004), 「국어사 교수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0, 407-432.
- 이규범(201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과 자료 분석」, 『한글연구』 51, 161-184.
-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 37, 303-326.
- 이승희(2015), 「어문 규범 교육과 연계한 국어사 교육 연구 - 고등학교 '국어2'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9, 7.
- 이지은(2007), 『고전 이해 능력을 위한 문법 형태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19),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사 단원 분석 연구」, 『청람어문교육』 70, 427-461.
- 임재욱(2017), 「〈梨花에 月白호고〉의 의미 재검토 - "아라마는"을 "알건만"으로 해독한 견해에 의거하여」, 『한국시가연구』 43, 221-244.
-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373-399.
-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교육』 10, 287-311.
- 조용린·백낙천(2014), 「언간을 활용한 국어생활사 교육 방안」, 『국제언어문화』 30, 165-186.
-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2, 325-354.
- 철학사진편찬위원회(2009), 『철학사전』, 충북: 중원문화.
- 최소영(2018),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텍스트 구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665-689.
- 최소영(2021), 「국어사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영주어문』 49, 239-288.
- 허재영(2005), 『국어의 변화와 국어사 탐색』, 서울: 소통.
- Stainback & Stainback(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Dubuque, IA: Kendall/Hunt Pub.

## 국어교사의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김수정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들이 국어사 수업을 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어사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네 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선행 연구와 그간의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1차 예비 문항을 만들었다. 둘째, 1차 예비 문항과 전문가 개방형 설문자료(20명)를 비교·검토하여 국어사 교육내용 인식에 대한 정보를 담은 2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2차 예비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20명)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 설문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였다. 넷째, 21문항을 포함하는 최종 설문지의 요인구조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료(100명)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총 135명의 현장 국어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개방형 설문자료), 기술적 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검사(Cronbach's  $\alpha$ )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사가 인식하는 국어사 교육내용 정보를 측정하는 21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핵심어 국어사 교육, 국어사 교육내용, 국어생활사 교육, 국어교육, 국어교사 인식, 척도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Perception of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Kim Sujeong

This study clarifies the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contents that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achers regard as mandatory in their classe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cale for the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contents an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scale. The study underwent a four-stage research process. First, the first preliminary questions were created through reviewing the existing studies and curriculum. Second, the second preliminary questions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contents were select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first preliminary questions and an open-type questionnaire for experts (20 subjects). The validity of the questions was verifi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ird, data collected from the second preliminary questionnaire (20 subjects) were analyzed to revise and supplement questions. This led to the selection of questions for the final questionnaire. Fourth, new data (100 subjec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verify the factor structure suitability for the final questionnaire including 21 questions. A total of 135 on-site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educatio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inductive domain analysis (open questionnair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test (Cronbach's  $\alpha$ ), etc. Through the above process, this study developed a 21-question scale which measures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content information perceiv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verifi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KEYWORDS**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Contents,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Teachers' Perception, Scale